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OSPI200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주식현물 포트폴리오와 추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합니다.

주식현물 바스켓: KOSPI200지수와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150개 내외의 주식으로 바스켓 구성

KOSPI200지수선물 매매: KOSPI200지수와 KOSPI200지수선물과의 차이인 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여 주식현물바스켓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우 투자 실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52억 원

-모투자신탁 1,346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F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C-P2(연금지축) : 2014년 05월 02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벤치마크 KOSPI200 100%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수탁)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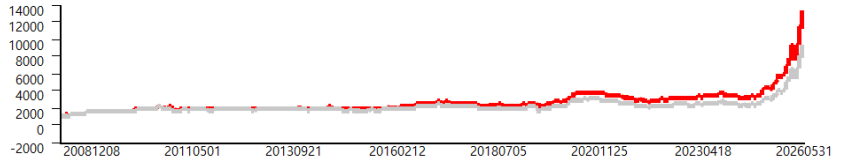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35.13%	44.30%	143.54%	277.62%	291.48%	324.05%	254.30%	1,218.74%
클래스 A-E	35.11%	44.18%	143.16%	276.35%	288.68%	319.42%	247.74%	550.84%
클래스 C-F	35.12%	44.22%	143.28%	276.73%	289.49%	320.75%	249.62%	1,158.08%
클래스 C-P2(연금지축)	35.10%	44.11%	142.95%	275.63%	287.04%	316.71%	243.91%	552.18%
클래스 S	35.11%	44.19%	143.18%	276.40%	288.76%	319.55%	247.92%	555.60%
벤치마크	35.34%	43.87%	142.39%	273.40%	274.87%	295.97%	213.81%	826.7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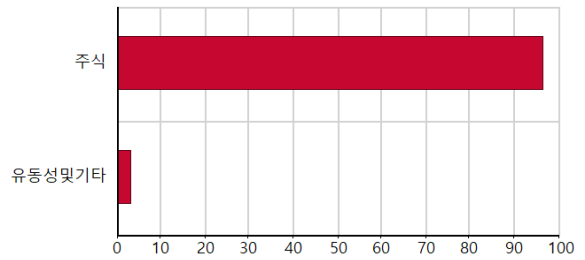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5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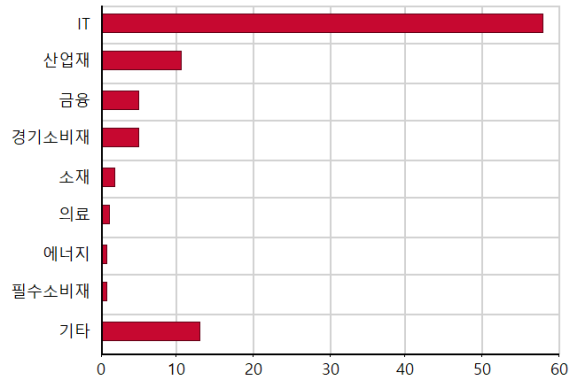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6.6
2	유동성및기타	3.4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58.0
2	산업재	10.7
3	금융	5.1
4	경기소비재	4.9
5	소재	1.8
6	의료	1.2
7	에너지	0.9
8	필수소비재	0.9
9	기타	13.1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5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7.5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1.8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4.1	KB금융	금융	0.9
KODEX 200	기타	12.3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0.9
삼성전기	전기.전자	2.2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0.9
SK스퀘어	금융	2.1	삼성SDI	전기.전자	0.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2725% (판매 0.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0.6125% (판매 0.38%)
- 클래스 S : 총 연 0.3725% (판매 0.14%)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클래스 C-F, C-P2(연금저축):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5월 KOSPI는 전월 대비 28.45% 폭등한 8,476.15pt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KOSDAQ은 9.86% 하락한 1,074.80pt로 장을 마감하며 극단적인 디커플링을 기록했습니다. 5월 증시는 지수 신고가 경신, 특정 IT 종목으로의 강한 수급 쏠림, 외국인의 역대급 차익실현 매도가 동시에 나타난 이례적인 장세였습니다. 5월 초부터 KOSPI지수는 4월 말 미국 빅테크들의 CAPEX 상향 호재에 힘입어 메모리, MLCC, 기판 등의 수퍼 사이클 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도주들이 폭등하며 7,000pt 돌파했고, 장중 8,000pt를 터치하는 역대급 속도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가파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미국 4월 CPI-PPI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한 국제 금리 급등이 맞물리며 지수는 7,000pt선 부근까지 되돌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매크로 노이즈로 인한 조정 이후, 미-이란 휴전 연장안 체결 기대감에 따른 유가 및 금리 안정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6월 방향 기대감 등 호재가 연이어 집중되면서, 재차 상승 탄력을 받아 KOSPI는 8,400pt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KOSDAQ은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 출시 효과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주도주로의 수급 이탈, 바이오주 투자 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과 반도체, 자동차부품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정유, 엔터투어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5.80 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의 노이즈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 장기화 우려로 전월 대비 16.86% 하락한 배럴당 87.36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8.7조원, 42.1조원의 순매수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51.5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증권사들의 KOSPI 지수의 전망치가 10,000pt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2026년 710조원, 2027년 890조원인 상황으로, 과거 평균 PER 10배를 적용해 PER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KOSPI 지수 10,000pt는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KOSPI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KOSPI PER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7배대에 머무르고 있어 2026년 KOSPI 지수의 상승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아닌 EPS 증가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고유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나, 아직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증가율은 상향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 전쟁의 마무리 국면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 영향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5월 후반을 지나면서 일부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쏠림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되돌리는 과정에서의 중소형주의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강한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대형주의 멀티플 리레이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6월에도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에 대한 의견을 유지합니다.

BM복제율은 당분간 높게 유지하며, 차익거래와 지수펀드, IPO 참여, 기업 이벤트 트레이딩 또한 지속적으로 구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